

## 제주서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잇따라

**변이 감염자 104명... 2~6월 확진자 중 32.3% 차지  
 알파 101명·베타 1명... 전파력 강한 델타도 2명  
 주요 변이 감염 추정 확진자도 총 239명으로 추산**

제주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추가 확인되고 있다. 앞서 발표한 감염자를 포함할 때 도내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누적 104명으로 늘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분석 시행 결과 이 중 15명으로부터 알파·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규 변이 검출자 15명은 이달 8일부터 16일까지 코로나19에 확진된 이들 중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추가 확인된 15명 중 1명은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해 국제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델타 변이 감염자다. 나머지 14명은 알파 변이 감염자다.

도내 변이 감염자 104명 중 101명은 알파 변이, 1명은 베타 변이, 2명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나타났다.

이달 집단 감염 사례 중에서도 변이 검출자가 나왔다. 15명 가운데 13명(12명 알파 변이·1명 델타 변이)은 개별 사례에서 발생했지만 2명(알파 변이)은 이달 급속한 가족 간 전파를 보였던 '제주시 일가족'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단 감염으로 지난 9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총 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 누적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가운데 해외 입국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02명은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는 102명 중 52명은 개별 사례에서 발생했으며, 50명은 급속한 전파력을 보였던 집단 감염 관련자들이다.

직접적으로 변이 분석을 하지 않았지만 기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되거나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를 감염시키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된 감염자는 총 135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알파 변이 관련은 133명, 델타 변이 관련 2명이며 아직 베타 변이 바이러스 전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이 바이러스 검출이 확인된 확진자와 역학적 연관성까지 모두 고려할 때 제주지역에서 주요 변이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는 239명에 달한다. 알파 변이가 234명으로 97.9%를 차지했으며, 베타 변이

가 0.4%(1명), 델타 변이가 1.7%(4명)이다.

도 방역당국이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시작한 올해 2월 1일부터 최근 감염자를 확인한 6월 29일까지 제주 지역 신규 확진자 740명 가운데 32.3%(알파 변이 31.6%, 베타 변이 0.1%, 델타 변이 0.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인 셈이다.

한편 이날 기준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총 19만6647명이며 접종 완료자는 6만1639명으로 집계됐다. 도민 전체 인구수 대비 1차 접종자 비율은 29.1%, 완료자 비율은 9.1%를 보이고 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복직하는 제주국제공항**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다. 관광·여행 목적으로 제주도에 입도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차단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4·3 모델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착수 제주도, 유엔 글로벌지수 등제도 함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 모델을 중심으로 트라우마 회복지표(TRI)를 개발해 유엔 글로벌지수 등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트라우마 회복지표는 개인이나 사회가 받은 트라우마에 대한 외상 치료와 함께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배

경과 이유의 본질적이고 구조적·내면적인 이해와 접근을 바탕으로 한 치유를 망라하는 척도이다.

해당 지표는 각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가해자 처벌, 배·보상의 과정과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와 그 회복과정을 통해 사회 구조 및 구성원들의 의식에 얼마만큼의 변화

를 가져왔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국제비교 연구사업'은 제주4·3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과거사 극복 유형을 비교 연구해 이를 공통 기준 척도로서 발전시키고, 그 결과를 유엔 글로벌지수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연세대 인간평화와 치유연구센터 등 국내·외 우수 학술기관 및 전문가와 협력해 등제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트라우마 회복 지표의 개념을 설정하고 측정모형과 측정도구를 개발한 후 구체적인 사례들의 회복력 수준을 평가한다. 이어 최종 트라우마 회복력을 지수화해 UN 글로벌지수에 등재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국내·외 트라우마 4개 유형·5개 대륙·10개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4·3의 치유·회복과정이 가장 성공적인 과거사 극복 모델임을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대모기자

## 디지털 융합 기술로 농업 기반 고도화 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분야에 드론과 인공지능(AI)을 융합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도내 주요 농작물에 대한 재배면적 예측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1년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해당 공모에서 월동작물 10종 및 식량작물 5종 등 총 15종에 대해 드론·항공·위성영상을 활용해 AI 기반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제주 농업정책 주요 작물 자동탐지를 위한 멀티센서 이미지' 과제를 제

출해 최종 선정됐으며, 국비 19억원이 지원받게 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융합한 농작물 재배면적 예측 등 과학적인 농업정책 지원을 위해 월동작물 6종에 대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직접 고용 및 클라우드 소싱 등을 통해 112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드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얻게 되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농업분야에 대한 인공지능 데이터 댐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진상규명" 도의회 행자위, 본회의 의결 후 청와대 등 결의안 전달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들어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 차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9일 제396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4차 회의를 열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추진 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 등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을 촉구함으로써 강정마을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향후 국제사업 추진 시 발생 가능한 갈등을 방지하는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6월 "해군기지 유지 및 결정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경찰과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이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경찰청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 사과했고, 위원회 권고에 따라 개선 의지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국가기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했지만 후속조치와 대책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추진을 촉구한다"며 "제주도 또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결의안은 3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방부(해군본부), 행정안전부(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 코로나19** 누적 확진 1264  
 29일 17시 기준

이룸갤러리

### 한성훈 화백 초대 특별전

Symphony of the Universe

- 1) 메시지 아트 선연시대
- 2) 내추릴기법 시대
- 3) 세밀화 시대
- 4) 바이올린 구도 시대
- 5) 스토리텔링 시대
- 6) 선묘(필릭) 시대
- 7) 다이아몬드(복합)구도 시대

**기간. 2021. 06. 16 ~ 07. 13**    **장소. 이룸갤러리**

운영시간. 매일 10:00 ~ 22:00 (일요일 14:00 ~ 22:00)    홈페이지. www.irumgallery.com    문의. 010-9882-8119

찾아오시는 길 |    주요수상 |

오일장 교차로

마트로마트

이룸 갤러리

순복음교회

신광 사거리

2018 · 일본 동아연합신문 창간 70주년 기념제정 미술상 대상수상  
 · 한국문화 미술대상 대상수상  
 2016 · 파리 평론가협회 평론가상 수상, 스웨덴 평론가상 수상  
 2016 · 코아프 초대전 코아프 차트 1위작가  
 2015 · 대한미술상 수상  
 2014 · 21세기 포럼 문화재단 문화대상 수상 (장성민 이사장실림)  
 2012 · 런던 아트페스티벌 대상수상  
 · 경향신문 선정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11 · 월드 코리아 파운데이션 국제미술대전 그래픽 대상 수상  
 · 스포츠 서울 선정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08 · 서울신문 선정 올해의 작가상 수상  
 2007 · 유네스코 60주년 기념 한국 유네스코 미술상 대상 수상  
 · 국제 평화 예술상 수상 (인테네셔널 비브리칼 아트대전)

**이룸갤러리**    ADD.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서로 7827-1, 2층    PHONE. 070-7795-5000    E-MAIL. irumgallery@naver.com